

수성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3년 연속 인증

등록 2023.12.13 11:26:45



동물해부학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수성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는 동물보건 양성기관으로 3년 인증을 연속으로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대구에서 동물보건 양성기관으로 인증된 대학은 수성대와 계명문화대가 유일하다.

수성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서면·현장 방문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로 평가를 받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6년11월17일까지 3년이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는 교육과정·조직 및 운영·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학생·교수 등 5개 영역, 12개 부문 및 3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수성대는 교육시설, 실습기자재 등 기본 시설은 물론, 교육과정 등 평가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는 전국에서 신청한 17개 대학 가운데 수성대 등 6개 대학만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성대 반려동물보건과 학생들은 내년 실시될 동물보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김정은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